

# 전자출판과 독서생활

## 주명철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

글의 생산, 전달, 수용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정보양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양식은 입에서 귀로 정보를 나누던 단계에서, 글을 발명해서 여러가지 소재에 적거나 종이에 찍어서 다음의 세대로 물려주는 단계로 바뀌고, 이제는 전자매체로 소통시키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여기서 나는 정보양식이 한 단계씩 발전하면 앞 단계가 소멸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다양한 현실에 놓여 있고, 각자는 제 나름의 능력과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벌써 전자매체를 제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붓짐장수나 여행자의 입으로 동네밖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정보양식에서 선진국형의 단계에 와 있다.

우리나라에는 종이책과 전자책이 함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다. 종이책의 경우, 우리는 외국책을 많이 번역해서 이용했다. 그러나 저작권료의 문제가 크게 떠올라 출판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나 자신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부에 부족한 나는 직접 책을 쓰기보다는 좋은 책을 번역해서 내 전공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는데, 이제 출판업자들은 사업상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잘 팔리지 않는 책을 발간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학자가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차라리 잘된 점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책을 직접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문제는 어떠한가? 전자책과 함께 책의 구조상 혁명이 일어났다. 책이 두루마리 형태에서 오늘날의 권, 쪽의 형태로 바뀐 것이 첫번째 구조상의 혁명이라면, 화면을 통해서 읽는 전자책은 두번째 혁명이라 하겠다. 구조의 혁명으로 소재가 바뀌게 되었다. 종이라는 자원보다 훨씬 값싼 소재로 '컴팩트 디스크'를 만들어 막대한 분량을 담은 전자책은 부가가치가 높다. 우리는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에서 우리말의 한계, 따라서 독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출판업계가 될 수 있는 대로 영여권 독자를 의식하면서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출판업계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전자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종이책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저작권료 못지 않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저작권료의 자원은 많다. 우리나라의 말과 글, 역사, 문화유산, 그와 관련된 정신적 유산인 동양고전 따위는 우리가 서둘러 전자화해야 할 자원인 것이다. 사진, 영상, 소리를 넣을 수 있는 전자책의 장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전자책 개발에 온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독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종이책에는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전자책의 독자는 제멋대로 원문을 자르고 조각해서 일종의 공동저작자가 되거나, 완전한 저자처럼 행세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행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읽을거리가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나 철학적 내용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이책이건 전자책이건,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전읽기, 역사읽기로 항상 올바른 방향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매체를 접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그래야만 글의 진정한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출판 시론	2	"재판매가격제는 존속돼야 한다" - 김성재 외국 경우와는 사정 달라... 철폐하면 큰 혼란
특집 / 저작권 강화시대에 학술출판이 갈 길	4	4 학술 지원 기쁨에 목타는 출판사들 진흥기금 예산 확보에 난항
	6	6 우리 사회 지성의 눈높이는 얼마인가 - 최용석
	7	7 훌륭한 번역은 미래 학문의 밑거름 - 이정우
	8	8 이런 학술서가 필요하다 윤지관 / 이광래 / 이종관 / 최몽룡 / 이연규 김성국 / 박상섭 / 김창록 / 황상익 / 이인식 박시룡 / 홍옥희 / 이장직 / 안치운
출판계 소식	15	'월봉저작상' 이성무 교수 수상·외
출판 화제	16	주요작가 전집, 굵직한 기획물로 잇따라
책과 사상	18	모순에 휩싸인 궁핍한 도시의 수호신 - 박동천 베에르 부르디외의 사상과 <구별짓기>
정보 라이트	19	④ 상품으로서 책의 유형 - 조승훈
해외신간 리뷰	20	동성애의 자기인식에 대한 이정표 - 김종엽 조나단 네드 카츠의 <헤테로섹슈얼리티의 발명>
재미있는 기획산책	21	한권의 책이 빚어내는 '윈도우 효과' - 장익순
컬러 화보	22	'세계의 그림책 우리의 그림책' 전시회
특별 기고	26	제자리 찾아온 일본 유출 문화재 - 김봉렬 '데라우치' 문고 총 98종 135점 반환
21세기의 출판주역	28	'당대'의 건강한 지성을 일군다 인문과학 출판사 당대의 문부식씨
이 책 그 사람	29	<김금화의 무가집> 펴낸 김금화씨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펴낸 지만원씨
서평	30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 정구복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 김춘식
	32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 현대사> - 정해구 하버마스 <새로운 불투명성> - 윤평중
새책 흐름	34	현장감이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외 / 인문·사회
	36	미시의 세계로 떠나는 대탐사·외 / 과학·기술
	38	신간 안내
	46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환
		표지 / '세계의 그림책' 전시회에서(관련기사 22면)